



제7장 신흥종교 新興宗教

1. 일연정종(日蓮正宗) 장수지부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47-3번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장수지부 설치일은 서기 1984년 1월 14일에 설치하였다. 현재까지 교도는 70명 정도, 매월 1회씩 장수리 147-3번지 부인 부장 배인이여사집에 모여서 회합 혹은 교학하며 교학시 지도는 전주지부에서 나와 지도한다. 일연정종은 불교의 한 종파로 그 뿌리는 일본에 두고 있다. 교리 전체를 보면 그대로 불교인데 이 종파가 한국에 온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운영의 내용은 약간 근대화 된듯 하나 신앙면에서 보면 불교 교리에 우리의 토속신앙이 많이 가미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교의 운영 문제는 자발적 선금으로 충당하며 어떤 명목으로도 타의에서 선금이나 회사 시주를 권하지 않는다. 동교에서는 학당 도장 등의 용어는 없고, 회합이나 수련장이 건립된다고 하면 명칭을 회관이라 부른다. 일연종이 장수에 도장을 신설하였다. 그 도장의 명칭은 장수 일연종 회관이라 명명하게 된다. 1년에 한번씩 교인이 총집결하며 이 때에 소집된 회의 명칭은 광포부원제라 하고, 이날은 교도의 자의에 의하여 물질교 재단에 시주할 수 있는 기회라 한다. 일반적으로 신도에게 운영비를 증수치 않는다. 다만 자의에 의하여 회사하며 결코 타의에 의한 징수는 절대 배격하고 있다.

장수지부의 조직 현황을 장년부, 부인부, 대학부, 고등부, 초등부로 나누어 졌으나 현재로서는 대학부, 고등부, 초등부, 중등부 등은 조직적 차원에서 필요하였을지 모르나 종교적 신앙 앞에 불가할 것이다. 여하간 상기 일련종의 불교의 교리는 불교진리 탐구이전에 불교종파 조직에 우선적임을 알 수가 있다. 현재 장수 지부의 지부장은 장덕진 씨이다. 간행물을 교도들이 자의에 의하여서 현금 5백원으로 매입, 탐독하고 있다. 동교의 운영비는 현재까지 무료로 한다.

2. 국제도덕협회 (國際道德協會)

-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50 번지
- 종 명 : 국제도덕협회
- 법 당 : 45 평, 생활관 25 평
- 대 지 : 257 평
- 연 혁 : 1964 년 개황
- 도 친 : 2천명(현재의 행자) 40명

이 종교는 대표자를 총재라 칭하며 초대 총재에 김복당(金福當)인데 외국에서 도를 득하고 고국에 돌아와 협회를 개황하였다. 중앙의 총회는 1947년에 개황하였고 장수에는 1964년에 개황하였다. 교리는 불교의 달마선사를 교조로 하여 선사상을 중심으로 수교한다. 어휘 자체는 유교의 교육학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예를 들면 명칭자체가 국제도덕협회인데 도와 덕을 논하는 종교는 대동소이 하나 그 비중을 높이 말하는 것 역시 유교의 교리 중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 도덕협회에서도 역시 도와 덕을 무게 있게 다룬 점이다. 본회의 목적은 본 협회는 계왕성개래학(繼往聖開來學)에 의한 5교성인의 성리심법을 전수하고, 미륵조사를 주존불로 봉사하는 공공불당의 재산관리와 운영을 기하고 윤리도덕을 궁행하며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덕화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도덕협회 목적의 뿌리는 달마 선사에 두고, 가지는 공자의 도덕론에다 둔 듯한 인상이 있다. 불교나 유교나 도교는 동양적인 종교인 까닭에 제야발전을 위해서는 옳은 이론이다. 도덕협회의 종지를 보면 더욱 동양적인 것을 느낀다. 경양천지(敬仰天地) 하늘과 땅의 진리를 받들 종지(宗旨)



1. 경앙천지(敬仰天地) 2. 예배신명(禮拜神明) 3. 효경부모(孝敬父母)
4. 경중사존(敬重師尊) 5. 독신붕우(篤信朋友) 6. 화목향린(和睦鄉隣)
7. 근언신행(謹言慎行) 8. 개악향선(改惡向善) 9. 본성회복(本性回復)

이상의 종지는 고금의 사회에서 일 향으로 가르치고 익히고 행하여야 할 중대한 교훈들이다. 본회가 주장하고, 나온 것은 사실상 무례하기 쉬운 세상에서 반듯이 상기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본회 강령을 살펴보자.

〈강령〉

1. 도덕제세(道德濟世) 2. 진리화민(眞理化民) 3. 구정세도(救正世道)
4. 실천강륜(實踐綱倫) 5. 국시순응(國是順應)

5대강령에 나타난바 도덕으로 세상을 구제하고, 바른 것으로서 국민을 귀착시키고, 세상에서 덕으로서 바른 것을 찾고 사람으로서 행할 바를 찾아서 실천에 옮기며 나라의 법에 순응하여야 한다. 이상의 강령에서도 본회가 주장하는 도덕을 찾아볼 수가 있다.

道論 道→眞理 生命 實相 →-, 理致 生成

天···天理가 없으면 서지 못하고

道→地···地理가 없으면 기르지 못하고

人···性理가 없으면 살지 못하고

物···物理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고

공자 왈 도야자불가 수유난야(孔子曰 道也者不可 須臾難也) 우리가 능히 본성대로 하면 도를 닦게 되나니 도는 우리가 반듯이 행해나갈 큰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행함에 반듯이 길이 있어야 할 것이니 길이 없으면 촌보도 행하기 어려우며 정로(正路)를 행하면 날로 평탄하여 광명한 곳으로 나갈 것이요, 사도를 행한 즉 기구협조(岐嶇險阻)하여 반듯이 함정에 떨어지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에 합한 것은 광명 대도가 되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암흑한 사도가 된다. 그런고로 공자께서 사람을 가르치는데 예가 아닌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 하였다.

이상이 사람 된자 배우고 가르치는 본분이며 일체의 움직이고 그치는데 예에 합 하면 스스로 화하고, 예에 합하지 못하면 화가 문전에 올 것이다. 그런고로 도는 만물의 생활지요소(生活之要素)요 만물을 지배하는 주재요, 일절유정지교주(一切有情之教主)요, 지허지령(至虛至靈)한 진리요, 지성지현(至聖至玄)한 대덕이다. 이상과 같이 본 도덕협회는 도와 예의 진리를 가르

치는 것이 교지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종교다.

3. 일관도(一貫道)

- 위 치 :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 창 립 : 1967년
- 건 물 : 40평과 부속건물
- 도 친 : 2,000명

본 종교는 1947년에 최초로 서울특별시 충무로 3가 47번지에서 김복당 선생이 창설하였다. 본 협회는 1977년에 박복구(朴福九)스승이 자기 집에서 부터 시작하여 교세를 확장하였다. 본교는 달마선사(達摩禪師)를 교조로 하여서 노자, 공자의 진리를 합해서 강령과 종지를 정하였다. 그런 까닭에 유 · 불 · 선 삼교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도친을 교육할 때는 삼청사정(三清四正)을 정하여서 교육한다.

삼청(三清)

- ①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족하지 결코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는 범할 수 없다.
- ② 정과 사를 분별하여 공명대도를 선택할 일이지 결코 사사로운 길을 선택해서 는 안된다.
- ③ 사물에 집착하여 일거일동 맏지 못하면 결코 안된다. 등의 교리는 평범한 듯 하면서도 뜻이 깊다. 종지를 보면 공자의 교리와 노자의 교리를 밝혀 놓았다.

종지(宗旨)

- ① 경양천지(敬仰天地) 하늘과 땅을 공경하라는 뜻인데 공자의 순천자(順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이라는 말과 동일함을 볼 수가 있다.
- ② 예배신명(禮拜神明) 신에게 절을 한다.
- ③ 효순부모(孝順父母)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효성을 하라.
- ④ 존중사존(尊重師尊) 스승을 중하게 알며 반듯이 존경하라.
- ⑤ 독신붕우(篤信朋友) 벗에게는 항상 믿음을 돈독히 하라.
- ⑥ 화목향린(和睦鄉隣) 이웃간에는 반듯이 화목하여야 된다.

- ⑦ 근언신행(謹言慎行) 말은 삼가하고 행동은 신중하게 하라.
- ⑧ 개악향선(改惡向善) 악한 성품을 고치고, 착하게 살아가라.
- ⑨ 본성회복(本性回復) 사람이 본래의 타고난 '착한 마음씨를 다시 찾아라.' 하는 등의 구개(九個) 종지(宗旨)가 있으며 오개(五個)의 강령(綱領)이 있다.

강령(綱領)

- ① 도덕제세(道德濟世) 도와 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하며 만민을 구제 하라.
 - ② 진리화민(真理化民) 참다운 이치로서 백성을 다스려 스스로 후덕해지도록 교화하라.
 - ③ 구정세도(救正世道) 바른 이치를 구하여 세상을 제도하라.
 - ④ 실천강윤(實踐綱倫) 삼강오륜의 윤리를 실천하여 세상이 보고 따라 오도록 하여라.
 - ⑤ 국시순응(國是順應) 나라의 기강을 준수하며 모든 시책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등의 강령도 세상에 밝혀진 교훈들이지만 믿고 의지하려는 교지가 아니고, 개척 적이고, 창조적인 면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하겠다.
- 물질만능과 세계의 윤리가 혼합되어 혼란한 오늘의 세계에서는 꼭 필요한 교훈들이라 하겠다.

4. 한얼교

- 위 치 :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 123 번지
- 연 혁 : 1960 년(경북에서 시작)
- 건 물 : 교도의 집(임시)
- 교 도 : 약 60 명

한얼교는 1960 년에 경북 대구에서 시작되었으며 교리는 단군왕검의 건국 이념을 중심으로 한 순수한 한국적 종교로 표현하고 싶다.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등의 다목적 교리를 집대성한 감을 주기도 한다.

단일민족인 까닭에 한얼 민족이며 한얼 민족은 한 정신 민족인 까닭에 우리민족의 분열에서 통일로, 분쟁에서 화합으로 가야 한다는 절대 민족 일체를 부르짖고 있다. 한얼교 장계 천궁은 교당도 없고 교도도 적으므로 전교 사업이나 교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한얼교의 교리로 보면 크게 발

전할 것이 보인다.

단군 왕검의 건국이념은 한얼사상이 내포되었다고 한다. 한얼사상은 사람은 사람을 위하여 크게 도움을 주워야 하며 그것이 홍익인간 사상이다. 홍익인간은 그 뜻이 공명정대하여서 어디에서 누구를 대해서도 유연하고 부드러워 덕이 있고, 홍익 인간은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항상 예절 바르며 생기가 있다. 홍익인간은 항상 권리에 아부하지 않고 초연한 자세로 위도 아래도 없이 평범한 바른 기운이 있다. 이상의 사상은 우리 민족의 기본이 정신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민족 이상과 같은 자존심에서 반만년 동안 외적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 왔다. 한얼교는 이상과 같은 이념이 내포되어 있는 점이 민족적 양심에서 마음이 간다.